

계 열 문 항 1

<가>

아이들이 문제아로 낙인찍히면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재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낙인 과정은 중요하다. 부모가 자기 아이를 문제아로 낙인찍을 경우, 아이들의 일탈은 더 증가한다. 낙인은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아이들의 자아 이미지를 낮춰 비행を増가시킨다. 부모의 낙인은 매우 치명적인데, 이는 아이가 자신의 낙인 효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비행 친구를 찾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반복적이고 강렬한 낙인이 찍힐 위험에 처하며, 이는 자기 낙인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훼손한다.

아이가 부모나 교사 등 중요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부정적으로 낙인찍힌다고 인지할 때, 일탈적 자아 개념을 수용하게 된다. 그 결과, 아이들은 일탈 친구와 사귀고 비행 집단에 가입하기도 하며, 이는 범죄 행위 가담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범죄 행위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면 낙인 효과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공식적 낙인으로 학교에서 퇴학의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이렇듯 법원의 개입은 범죄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차후 범죄 가능성을 더 높인다.

요컨대 부모나 친구가 아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로 인해 아이가 손상된 정체성을 지니게 되면 나중에도 범죄를 지속할 수 있다. 즉, 어릴 때 낙인찍힌 아이가 그러한 낙인을 극복하지 못하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취업 기회마저 잃게 된다면, 성인 초기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함과 동시에 형량을 상향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러한 엄벌주의 정책이 소년비행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몇몇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한다면, 목적하는 성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과 사회 복귀를 강조하는 보호처분 대신에 구금을 중심으로 하는 형벌만을 강조한다면 이후의 소년범 재범률은 필연적으로 높아진다. 형벌은 보호처분과 비교하여 더욱 강렬한 부정적인 낙인을 부여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배척,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자기 관념을 강하게 하므로 사회 복귀가 더욱 곤란해져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미국 소년사법 역사와 여러 실증적인 조사에 의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응보나 공공의 안전 등을 이유로 더 많은 소년을 보다 장기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가족과 지역으로부터 분리하는 엄벌주의는 오히려 소년과 성인범죄자의 재범률을 증가시켜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년비행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엄벌주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엄벌주의로 얻어지는 안도감은 허상에 불과하며 오히려 본질적 문제를 방치시켜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다>

잔인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자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도 소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사처벌의 목적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소년범들의 모방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그들의 범행이 잔혹할수록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심지어 영웅시되기도 한다. 경제성장과 학교 교육의 보편화로 과거보다 소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조숙해졌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소년범에 대해 더 강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형법 개정과 특별형법의 제정으로 성인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 마당에 소년범만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소년범에 대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높였고, 현재 소년범 적용 연령을 19세에서 17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년범이 우발적 범죄나 소년의 특성에 기인한 범죄가 아닌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범 적용에서 배제되고 일반 형사 법정에서 성인범과 동일하게 재판과 처벌을 받는다.

1-1.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소년범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시오. (300±30자)

1-2. 아래 제시된 표에 드러난 ‘최근 10년간 소년범죄 발생추세’를 범죄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하여 기술하시오. (600±60자)

<표> 범죄유형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2010-2019년)

다음은 2010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소년 범죄자의 범죄유형별 발생비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2010	400.7	-	33.7	-
2011	403.0	0.6	38.1	13.1
2012	442.4	10.4	34.7	3.0
2013	430.9	7.6	34.4	2.1
2014	367.4	-8.3	32.0	-5.0
2015	332.9	-16.9	28.2	-16.4
2016	352.9	-11.9	35.7	5.9
2017	319.3	-20.3	38.1	13.0
2018	300.6	-25.0	39.8	18.2
2019	327.6	-18.2	43.2	28.2

*발생비는 소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를 가리킨다.

계 열 문 항 2

<가>

우리는 에일머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궁극적인 통제에 어느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어떤 열정으로든 떼어 놓을 수 없을 만큼 그는 과학적인 연구에 깊이 몰입해 있었다. 어쩌면 젊은 아내에 대한 그의 사랑이 더 열정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과학에 대한 사랑과 같이 엮고 과학에 대한 사랑의 힘을 자신의 힘에 결합시킬 때만 오직 가능했을 것이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에일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조지아나, 당신 뺨에 있는 그 점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소?”

“아니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 점이 매력이라고들 해서 그저 그런 줄만 알고 별로 신경을 안 썼죠.”

“글쎄,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당신 얼굴에서는 안 그렇소. 사랑하는 조지아나, 당신은 자연의 손으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빚어져서 이 조그만 흠이, 글쎄 그걸 흠이라고 불려야 할지 아름다움이라고 불려야 할지는 잘 모르겠소만, 하여튼 그것이 이 지상의 불완전성의 상징처럼 나에게 충격을 주는구려.”

만약 그녀가 덜 아름다웠더라면 그는 아마도 그녀의 가슴 안에서 감정의 맥박이 뛸 때마다 희미한 모습으로 보이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또 슬그머니 나타나서 어른거리는, 이 손같이 생긴 아름다운 모양의 반점에 그의 애정이 고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점만 아니라면 그녀의 아름다움이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결혼 생활이 진행되어 가는 순간순간 점점 더 이 하나의 흠이 건디기 어려워져 감을 느꼈다. 그것은 자연이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모든 창조물에 지울 수 없게 찍어서 그것들이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임을 알려거나 그것들의 완전함은 오직 고통스런 수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암시하는, 어떤 낙인 같은 치명적인 흠이었던 것이다.

[...중략...]

“이 용액의 제조는 완벽하오.” 조지아나의 눈길에 대한 답으로 에일머는 그렇게 말했다.

“만일 나의 모든 과학이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면 이 약은 실패할 수가 없소.”

창문 앞 오목한 공간에는 온 잎사귀에 누런 얼룩이 퍼져 명들어 있는 제라늄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에일머는 제라늄이 자라고 있는 흙 위에 그 용액을 약간 부었다. 잠시 후 그 식물의 뿌리가 용액의 수분을 흡수하자 보기 흉하던 누런 얼룩들이 다 없어지고 싱싱한 초록색으로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그 잔을 주세요. 당신께 기꺼이 모든 걸 맡기겠어요.”

[...중략...]

“아 불쌍한 에일머!” 조지아나가 중얼거렸다.

“불쌍하다구? 아니, 이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한 행운아가 되지 않았고? 비길 데 없는 나의 신부여! 성공했다구! 이제 당신은 완전하게 된 거요!” 에일머가 소리쳤다.

조지아나는 인간의 부드러움 그 이상의 것이 담긴 어조로 반복했다.

“당신의 목표는 높았고, 당신은 그 목표를 훌륭히 이루었어요. 그러니 그런 고결하고 순수한 감정으로, 이 땅이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결코 후회하지 마세요. 에일머, 사랑하는 에일머,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오호라! 그건 사실이였다.

<나>

그리하여 더없이 존귀하신 장인(匠人)께서는 인간에게 고유한 몫으로 아무것도 주실 수 없는 만큼, 개개의 피조물에게 개별적으로 주셨던 것은 무엇이든지 인간에게 공통으로 주시기로 작정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을 미완된 모상(模像)의 작품으로 받아들이셨고, 세상 한가운데 그를 자리 잡게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 아담이여, 나는 너에게 일정한 자리도, 고유한 면모도, 특정한 임무도 부여하지 않았노라!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어느 면모를 취하고 어느 임무를 맡을지는 너의 희망대로, 너의 의사대로 취하고 소유하라! 여타의 피조물에게 있는 본성은 우리가 설정한 법칙의 테두리 안에 규제되어 있다. 너는 그 어느 장벽으로도 규제받지 않고 있는 만큼 너의 자유의지에 따라서(네 자유의지의 수중에 나는 너를 맡겼노라!) 네 본성을 테두리 짓도록 하여라. 나는 너를 세상 중간 존재로 자리 잡게 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아무것이나 편한 대로 살펴보게 하였노라. 우리는 너를 천상의 존재로도 지상의 존재로도 만들지 않았고, 사멸할 자로도 불멸할 자로도 만들지 않았으니, 이는 자의적으로 또 명예롭게 네가 네 자신의 조형자요, 조각가로서 네가 더 좋아하는 대로 형상을 빚어내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네 자신을 짐승 같은 하위의 존재로 퇴화시킬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그대 정신의 의사에 따라서는 신에 버금가는 상위 존재로 재생시킬 수도 있으리라.”

<다>

20세기 초반에는 인종주의자와 우익 보수주의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좌익 진보주의자 역시 의학 발전의 효과와 인간 유전자 개선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근대 사회는 이른 나이에 소멸해야 했었을 많은 ‘부적합한’ 사람들을 생존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쓸모없는 인간들이 늘어남으로써 이 세계가 퇴락할 것을 걱정했다. 그 결과 많은 나라들(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등)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생학* 프로그램 연구에 국가적 지원을 하였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1907년에서 1963년까지 64,000명의 사람들이 우생학적 법률에 따라 불임 시술을 받아야 했다. 정신장애인, 농아, 맹인, 뇌전증 환자, 노숙자 등이 그 대상이었다. 물론 그렇게 광범위하게 시행된 강제적인 불임 시술도 ‘열등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숙아낸 독일 나치(Nazis)의 우생학 프로그램에 비교할 수는 없다.

홀로코스트는 인간의 마음에 커다란 상흔을 남겼다. 같은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연상시키는 생각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해왔다(하지만, 역사는 반복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이 그렇다. 그때 세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80만 명에 이르는 아프리카인들이 도살당할 때 그저 멍하니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특히 우생학적 운동은 그 어떤 형태든 비난받곤 했는데 그 이름 속에 담긴 끔찍한 범죄들 때문이었다. 물론 몇몇 부드러운 우생학적 프로그램들이 최종적으로 폐기될 때까지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기는 했지만 말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배했던 비전을 통해 새롭고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한다는 목적은 이제 완전히 낡은 유물이 되었다.

*우생학(eugenics):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하고자 여러 가지 조건과 인자 등을 연구하는 학문

2-1. 제시문 <가>와 <나>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인간상을 설명해 보시오. (300±30자)

2-2. 제시문 <다>의 내용을 토대로 위 [문제 2-1]의 인간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시오. (600±60자)